

海昌尉 吳泰周(1668~1716)가 건립한 墓碑 연구

김민규*

- I. 머리말
- II. 오태주의 家系와 생애
- III. 능묘 석물에 대한 당대의 관심과 오태주의 인식
- IV. 오태주가 건립한 묘비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吳泰周(1668~1716)는 顯宗(재위 1641~1674)과 明聖王后(1642~1683)가 낳은 明安公主(1667~1687)와 혼인해 海昌尉에 봉해졌으며, 儀賓(駙馬)으로서 國政에 참여하지 못하고 글씨 등으로 自娛하면서 살았던 인물이다. 그의 부친 吳斗寅(1624~1689)이 仁顯王后 폐위(己巳換局)에 반대해 죽자 오태주는 스스로 경계하여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¹

己巳換局(1689) 이후 오태주가 부친의 遺志를 받들어 安城과 安山의 先代 묘소와 龍仁의 外家 묘소에 건립한 비석이 13기이며, 그중 건립을 마치지 못하고 후대에 완성된 작품이 5기에 이른다.² 이 비석들은 17세기 말 18세기 초 석조미술의 정점에 있었던 작품으로 매우 큰 의

* 동국대학교 강사

¹ 『肅宗實錄』 권58, 숙종 42년(1716) 10월 9일 을미. 「해창위 오태주 졸기」

² 오태주의 선영에 대한 기초연구는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덕봉리 해주오씨 묘역 문화재적 가치 조사』(2019).

미가 있으나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松雪體의 大家로서 오태주의 서예사적인 연구만 있었다.³

본고에서는 오태주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고, 선대 묘비 건립이 평생의 所業이 된 이유와 墓碑文의 著述觀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뒤이어 이 작품들의 특징을 石峯 韓濩〈大字千字文〉集字碑, 龍鈕形蓋石, 十字閣形蓋石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오태주의 家系와 생애

1. 오태주의 先代

오태주의 직계는 그의 7대조인 吳賢卿(?~1525)부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오현경은 그의 동생 吳彌卿(?~1525)이 1525년 柳世昌의 誣告로 인해 능지처참되자, 오현경과 그의 아들 吳慶雲(?~1525) 등이 귀양 가서 죽었다.⁴ 이후 오경운의 부인 豐山沈氏(?~1568)가 두 아들 吳壽千(1516~1589), 吳壽億(1519~1594)을 陽城(현재 안성) 沈氏舊庄으로 데려오면서 해주오씨가 현재 안성시 德峯里에 世居하기 시작했다.⁵ 그리고 1526년 오현경, 오경운의 묘소를 이곳에 조성하여 안성 덕봉리 선영이 시작되었으며,⁶ 오태주가 이곳에 다수의 묘비를 건립했다.

오수억은 武科에 급제하여 慶尙左道 水軍虞候를 지냈고,⁷ 그의 아들 吳定邦(1552~1625)이 무과 壯元을 하고 임진왜란에 공을 세웠으며, 李适의 난에 仁祖를 호종하는 등의 공을 세워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오정방의 아들 吳士謙(1573~1628)은 李尙吉(1556~1637)에게 배우고,⁸ 名流들과 교류

[[] 9) 참조.

[[] 3 오태주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연구는 한신대학교 박물관, 『海昌尉 吳泰周의 書藝』(2015); 정해득, 「해창위 오태주의 생애와 서예」, 『민족문화』48 (2016.12) 참조.

[[] 4 『海州吳氏家乘』 권10, 「吳壽千墓碣銘」, ‘…公從祖判官弼卿, 在中廟初遭柳世昌等誣告之變禍, 延一門. 通禮謫山陰, 承旨謫安陰相繼下世. …’

[[] 5 『海州吳氏家乘』 권10, 「吳壽千墓碣銘」, ‘…公妣沈氏提挈公兄弟, 居于陽城沈氏舊庄. …’

[[] 6 『醉夢軒散稿』 권3, 「揭墓舍壁上文」, ‘自我先祖主簿直長府君之始葬(在嘉靖丙戌云). …’

[[] 7 『海州吳氏家乘』 권14, 「吳壽億墓誌」, ‘…晚登武科 金甲島萬戶, 還授訓鍊院主簿陞判官, 出爲慶尙左道水軍虞候…’

[[] 8 『海州吳氏家乘』 권14, 「吳士謙墓誌」, ‘…嘗兵燹未早學爲恨, 就學於判書李公尙吉, …’

했다.⁹ 이후 오사겸의 네 아들인 吳翻(1592~1634), 吳翹(1602~1685), 吳翔(1606~1657), 吳翹(1615~1653) 등이 부친의 영향으로 여러 文士들과 교류하여 西人 중심가문으로 부상했다(표 1). 이로 인해 오두인, 오태주 등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

2. 오태주의 父 오두인

오태주의 부친인 오두인은 오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伯父 오숙의 養子가 되었다. 文才가 뛰어났던 오두인은 25세에 殿試 장원을 하고,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刑曹判書에 이르렀다. 그러나 1689년(기사환국) 肅宗(재위 1674~1720)이 仁顯王后(1667~1701)를 폐위하려고 하자 오두인은 李世華(1630~1701), 朴泰輔(1654~1689) 등과 80여인의 上疏 疏頭가 되었다. 이에 숙종이 진노하여 이들을 親鞫하고 오두인은 減死되어 義州로 귀양 가던 중 파주에 이르러 숨을 거두었다. 숙종은 오두인 사후 2달 뒤인 7월 24일에 오두인의 復官爵을 명하고, 1694년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오두인을 領議政에 贈職하고, 1696년에는 忠貞이라는 諡號를 내렸다.¹⁰

오두인은 평생 세 번의 혼인을 했는데 이는 그의 인생 및 가문의 향배와 닿아 있다. 첫 번째 부인 驪興閔氏(1625~1646)는 判書 閔聖徽(1585~1647)의 딸로 오두인은 19세(1638년)에 혼인 후 장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¹¹ 민성휘는 병자호란 때 斥和派 중 한 명으로, 이에 영향을 받은 오두인은 정치적으로 서인과 친밀했으며, 특히 척화파의 巨頭였던 金尙憲(1570~1652)의 손자인 金壽興, 金壽恒과 함께 기사환국으로 숨지게 되어 정치 행보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두인의 5남 5녀의 혼인 중 정치성향이 두드러진 집안이 사위 중에서 南宅夏, 金昌說, 金令行, 李緯, 며느리는 朴世城女, 金昌協女, 李翻女 등 7집안이 老論이며, 崔昌大만 少論이다.¹² 이로 볼 때 오두인이 서인 중에서도 노론과 관계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1).

[[] 9 崔錫鼎, 『明谷集』 권23, 「宗親府典簿吳公墓碣銘」, ‘…取友皆一時名流…’

[[] 10 오두인의 생애는 『海州吳氏家乘』 권2, 「忠正公府君年譜」 참조.

[[] 11 『海州吳氏家乘』 권2, 「忠貞公府君年譜」, ‘戊寅府君十五歲. 委禽於戶曹判書 贈領議政肅敬閔公聖徽之女(時閔公按節關西成禮於箕營仍受學焉.)’

[[] 12 吳鼎周의 장인인 李必馨, 黃義瑞의 정치성향은 분명하지 않다.

〈 표 1 〉 오태주의 가계

吳士謙(1573~1628)	1男 吳翻(1592~1634)	繼 吳斗寅 1624~1689 配 驪興閔氏(父 閔聖徽) 1625~1646 配 原州金氏(父 金崇文) 1631~1663 配 尙州黃氏(父 黃埏) 1646~1704	1女 海州吳氏(1642~1700) 南宅夏(1643~1718, 老論)
			1男 吳觀周(1645-1664) 配 潘南朴氏(父 朴世城, 老論)
			2男 吳鼎周(1648-1720) 配 全州李氏(父 李必馨) 繼配 尙州黃氏(父 黃義瑞)
			3男 海昌尉 吳泰周(1668~1716) 配 明安公主(1669~1687)
			2女 海州吳氏 金昌說(1669~1732, 老論, 父 金壽興)
			3女 海州吳氏 崔昌大(1669~1720, 少論, 父 崔錫鼎)
			4女 海州吳氏 金令行(1673-1745, 老論)
			5女 海州吳氏 李緯(1680~1746, 老論)
			4男 吳晉周(1680~1724) 配 安東金氏(父 金昌協, 老論)
			5男 吳履周(1684~1709) 配 牛峯李氏(父 李翻, 老論)
2男 吳翻(1602~1685)			
3男 吳翔(1606~1657)	吳斗興(1622~1665)		
3男 吳翔(1606~1657)	出 吳斗寅		
4男 吳翻(1615~1653)			

오두인의 두 번째 부인은 金崇文(1606~1664)의 딸 原州金氏(1631~1663)로 大同法 시행을 주장한 金堉(1580~1658)의 외손녀였다(표 2). 오두인은 1648년 원주김씨와 혼인한 뒤 進士 初試, 生員初試, 生員試에 합격하고(1648), 이듬해(1649) 전시 장원을 했다.¹³ 이 殿試의 讀卷

¹³ 『海州吳氏家乘』 권2, 『忠貞公府君年譜』 1648년~1649년

〈 표 2 〉 오태주와 청풍김씨 김육 가문과의 관계

金堉(1580~1658)	金佑明(1619~1675)	金萬冑(1639~1659)	金道濟(1665~1695)
		女 明聖王后(1642~1683) 顯宗(1641~1674)	明善公主(1659~1673)
			肅宗(1661~1720)
			明惠公主(1665~1673)
			明安公主(1667~1687) 吳泰周(1668~1716)
		金錫翼(1645~1685)	金道泳(1671~1700)
金錫衍(1648~1723)			
女 淸風金氏(1604~?) 金崇文(1606~1664)	女 原州金氏(1631~1663) 吳斗寅(1624~1689)	吳泰周 配 明安公主	

官이 金堉이었던 것은 오두인의 장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¹⁴

더욱이 김육의 손녀이자 오태주의 장모가 되는 明聖王后는 원주김씨의 사촌여동생으로 오두인은 사적으로 명성왕후의 4촌 兄夫이기도 했다(표 2). 이러한 관계로 현종 등극 후 오두인은 더욱 벼슬이 오르고, 1676년 명성왕후 侍藥廳에서 수개월 봉직하기도 했다.¹⁵ 1680년 오태주가 명안공주의 부마로 간택되는 것은 오두인의 두 번째 부인 원주김씨와 그 외가 청풍김씨 등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¹⁶

오태주는 청풍김씨와 많은 교류를 했는데, 金道濟(1665~1695), 金道泳(1671~1700)과 唱酬한 詩가 오태주의 문집에 실려 있으며, 김도제의 묘표를 오태주가 書寫했다. 오태주가 친족 이외의 묘비를 서사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친교를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두인은 1666년 오태주의 生母인 尙州黃氏(1646~1704)와 혼인했다. 상주 황씨는 용인의 세거 가문으로 오두인 가문과 여러 차례 혼인을 했었다(표 3).¹⁷ 특히 오태주의

¹⁴ 『承政院日記』 원본 105책, 인조 27년(1649) 4월 3일 신묘. '明日庭試文科, 讀卷官七, 李景奭·吳埏·金堉·呂爾徵·許啓·崔惠吉·宋時吉·...'

¹⁵ 『海州吳氏家乘』 권2, 『忠貞公府君年譜』 1676년.

¹⁶ 오태주의 부마간택이 명성왕후와 원주김씨 등과 연관 있다는 것은 신채용, 『조선왕실의 백년손님』(역사비평사, 2017), pp. 222-223 참조.

¹⁷ 해주오씨와 상주황씨의 혼인은 黃士幹(1396~1416)이 吳顯(오두인 9대조)의 딸과 혼인했으며, 吳正邦이 黃世愨의 딸과 혼인했다(『海州吳氏大同譜』, 『尙州黃氏大同譜』 참조). 오두인 부인 상주황씨는 水原浦院村에서 태어났으며(『海州吳氏家乘』 권5, 『貞敬夫人尙州黃氏行狀』), 해주오씨는 조선 초부터 수원과 용인의 경계인 梅綻村에 살았으며, 吳亭子坪이라고 불렸다고 한다(『海州吳氏家乘』 권8, 『逸事』)

〈 표 3 〉 오태주 가문과 상주황씨 황우한 가문과의 관계

黃佑漢 (1541~1606) 大司憲	黃挺英 宣武郎, 贈左承旨	繼黃埏(1604~1667) 武科, 海州牧使 贈兵曹參議	黃寅瑞(1626~1680) 武科, 忠清水使	黃鎰(1650~1680)
			黃震瑞(1630~1689) 安州牧使	繼黃鈺(1656~?) 海南縣監
			5女 吳斗寅	吳泰周
			6女 李奎齡	
黃挺豪(1573~1638) 宣武郎, 贈司僕寺正	1男 黃堧(1596~1668) 郡守, 贈戶曹參議	2男 黃堧(1606~1685) 通德郎	3男 黃有瑞 (1634~1693) 武科, 龜城府使	女尙州黃氏 花山君李澆 (1647~1702)
			2男 黃羲瑞 (1641~1705) 宣傳官	2女 尙州黃氏 吳鼎周
			4男 出黃埏	

이복형인 吳鼎周(1648~1720)가 黃羲瑞(1641~1705)의 딸을 繼配로 맞이하는데, 황희서가 오태주의 어머니 상주황씨와 本生 4촌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겹사돈을 맺었다(표 3).

3. 오태주의 생애

오태주는 오두인의 5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모친은 오두인의 세 번째 부인인 상주 황씨이다(표 1). 오태주는 號가 醉夢軒, 封號가 海昌尉로 12세였던 1679년에 명안공주와 혼인했다. 숙종의 형제 중 명안공주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숙종은 오태주 부부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¹⁸

숙종은 오태주의 문장과 글씨를 높게 평가해 오태주에게 다수의 시를 지어 보내 그 답장을 바로 받아오게 할 정도로 그의 글을 좋아했으며,¹⁹ 오태주를 敎命, 陵誌 등 書寫에 참여시켰

¹⁸ 숙종은 명안공주를 아버지처럼 돌보아 주었으며, 명안공주와 해창위의 第宅을 건축하면서 숙종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5월 23일 을해;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5월 21일 무진; 6월 10일 병술; 8월 11일 병술. 정해득, 앞의 논문, pp.232-234. 재인용.

¹⁹ 『醉夢軒散稿』 권2, 『廣載錄』, 『肅宗大王 每宣御製詩, 命府君和進, 前後將百篇. 蓋以宵衣少暇, 宸章之降多值, 夜深而宮隸立督和章取去.』

다.²⁰ 특히 숙종의 외조부인 淸風府院君 金佑明의 墓表 前面을 직접 쓰고 뒷면은 오태주에게 쓰게 해 자신이 가장 애호하는 글씨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태주는 49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는데 儀賓으로서 정치 참여는 매우 드문 대신 翰墨으로 自娛하며 살았으며, 詩文을 나눈 인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謹慎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오태주의 글은 『醉夢軒散稿』에 수록되어 있는데, 함께 唱酬한 인물로는 동생인 吳晉周, 평생 친구인 崔昌大, 妹夫人 金令行, 외가 조카인 黃潛 등 친인척에 국한되어 있다.

英祖(재위 1724~1776)는 오태주에 대한 많은 평가를 남겼는데 오태주가 東平尉 鄭載崙(1648~1723)에게 배웠으며,²¹ 자신도 延祔君 시절 정재륜과 오태주에게 늘 문의했다고 말해서²² 영조가 이들에게 크게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조는 자신의 필법은 體가 없지만, 오태주는 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그의 글씨를 높이 평가했다.²³ 더불어 오태주는 유언으로 請諡하지 말라고 했으나, 영조는 ‘文孝’라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²⁴

오태주의 동생 吳晉周(1680~1724)는 그를 ‘祖先을 예에 맞게 극진히 했으며, 祠屋을 건립하고, 祭田을 두었으며, 墳壟을 다스리고 가꾸며, 비갈을 수립했으며, 사당과 무덤에 일이 있으면 술을 마련함으로써 宗家를 도왔다. 世系가 먼 묘소에 역시 모두 제전을 경영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평가했다.²⁵

오태주는 일생 중 1689년 부친 서거 후 1716년까지 부친의 遺志를 따라 선대 묘소에 묘비 건립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오태주가 이 시기 건립한 선대 묘비에 대한 비문 著述觀, 양식적 특수성 등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²⁰ 정해득, 앞의 논문, pp.239-242.

²¹ 『承政院日記』 원본 930책, 영조 17년(1741) 4월 20일 갑인. ‘上曰, …其後海昌尉, 能學得東平之規模矣.’

²² 『承政院日記』 원본 922책, 영조 16년(1740) 10월 12일 기유. ‘予自在潛邸時, 豈曰謹勅, 而每事必問諸東平與海昌都尉矣, 儒臣常達以疑事, 問于東平云矣.’

²³ 『承政院日記』 원본 1137책, 영조 32년(1756) 10월 11일 을해. ‘上曰, 國體無體, 予之筆法, 亦無體矣. …上曰, 海昌尉之筆法有體, 徐命均筆甚艷矣.’

²⁴ 『承政院日記』 원본 1152책, 영조 34년(1758) 1월 12일 기해. ‘上曰, 海昌尉, 何不贈諡乎? 尙魯曰, 聞其遺言, 勿請云矣.’ 『承政院日記』 원본 1152책, 영조 34년(1758) 1월 16일 계묘. ‘海昌尉吳泰周贈文孝’

²⁵ 吳晉周, 『海昌尉文孝公府君行狀』(『海州吳氏家乘』 권3) ‘…奉祖先克盡盛禮, 建祠屋, 置祭田, 修飾墳壟, 治豎碑碣. 每有事祠家, 辨具粢, 盛以佐宗家, 世遠親盡之墓, 亦皆營田樹石. …’

Ⅲ. 능묘 석물에 대한 당대의 관심과 오태주의 인식

1. 능묘 석물에 대한 국왕 및 사대부의 관심과 역할

조선시대 국왕 및 사대부들의 능묘 석물 건립에 대한 관심은 능묘 석물의 수준 및 양식을 좌우할 수 있다. 능묘 석물은 孝事이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넘어 서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오태주의 장인인 현종은 孝宗 寧陵을 遷葬하고 석물을 새로 제작할 때 仁宗 孝陵 석물을 그대로 모방하게 했는데, 효릉에 화원을 파관해 석물의 草를 내어 영릉에 적용하였다.²⁶ 이로 인해 17세기에 제작된 효종 영릉에 15세기 왕릉 석조물의 圖像이 나타나게 되었다.

숙종은 1693년 定宗 厚陵을 拜謁하고, 厚陵 石物의 체제를 당시 왕릉에 적용하기 위해 1699년 端宗 莊陵, 定順王后 思陵을 후릉에 준하게 했으며, 1701년 仁顯王后 明陵도 후릉의 체제를 따라 건립하게 하는 등 왕릉 석물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²⁷

영조는 生母인 淑嬪 崔氏 묘소의 床石, 신도비의 蓋石 등에 坐向을 새겨 넣었으며, 이후 後宮, 翁主, 國舅 등의 상석과 비석에 좌향을 御筆로 새겨 넣는 것을 기획했다.²⁸ <숙빈최씨 신도비>(1725)의 개석 하단에 懸板을 조각했는데, 여기에 ‘御筆 乙向’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이 작품의 설계부터 영조의 생각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²⁹

<趙顯命 墓 武石人>(1752)에 대해서 영조는 “文武石은 요즘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豊原君(조현명) 묘에 홀로 세웠다고 하니, 풍원군은 항상 將帥로 자처했는데, 그 아들 載得이 아버지의 기풍을 武石으로 만든 것인가? 최천약이 풍원군이 남긴 뜻을 알아서 한 것인가?”³⁰라고 물을 정도로 왕릉뿐만 아니라 주요 사대부묘 석물에 대한 관심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祖(1752~1800)는 生父 思悼世子 顯隆園을 조성하면서 ‘내가 원침을 옮기는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지휘한 것은, 경비를 번거롭게 소비하지 않고 민력을 괴롭히

지 않으려고 해서이다.’라고 했다.³¹ 이처럼 조선 후기 국왕들은 능묘석물의 기획부터 참여한 예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이들의 관심과 더 나은 석물을 만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왕실 못지않게 사대부들도 묘소 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비문 찬술 및 서사뿐만 아니라 비석에 사용할 석재도 忠州, 恩津, 礪山, 金川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대리석,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江華의 화강암, 藍浦의 烏石 등 좋은 석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금을 지불해야 했다. 한 예로 <貞純王后 元陵 表石>(1806)의 오석 비신은 錢160냥이었는데,³² 이를 환산해보면 趙榮祐(1686~1761)이 1731년 구입한 주택의 1/4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이었다.³³

1781년 <黔巖紀蹟碑>를 건립하는데 소요된 재물이 7000여 금이었다고 하며,³⁴ 李文樾(1494~1568)은 부모 묘소에 문석인 1쌍을 건립하면서 석공에게 무명 30필을 주었기도 했다.³⁵ 이처럼 석물 조성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도 제시되었다.

尹拯(1626~1714)은 비석 건립 시 工匠을 불러 蓋石을 깎으면, 품삯과 식사비용으로 쌀이 40여말(斗)이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돌(완성된 비석)을 사오면 50말이면 되니 소요되는 장인들의 품삯 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완성된 비석을 구입해 건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³⁶

비석 글자를 새기는 비용 또한 많이 들었는데, 尹文舉(1606~1672)는 上品 綿布 1필로 12字를 새길 수 있다고 했다.³⁷ 오태주가 건립한 묘비 중 <오숙 묘비>가 2,800여자, <오두인 신도비>가 2,900여자인데 이들 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비용만 따지면 면포 475필 정도가 소요되는 큰 역사로 이문건이 건립한 문석인을 약 15쌍 이상 건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밖에도 비석 건립에 사용된 석재 가격과 운송비, 장인들의 품삯과 식사비 등 기타 비용을 헤아리면 오태주가 건립한 10여 기의 비석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였을 것이다. 이러한 묘비 건립의 책임을 안고 있었던 오태주는 비문의 撰者 선정, 서체 결

³¹ 『弘齋全書』 권58, 「遷園事實」, ‘予於遷園一事, 積有所經營措設者, 必欲不煩經用, 不勞民力…’

³² 『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1806), 「表石所儀軌」, 手本秩 “石子價錢一百六十兩 自戶曹上下.”

³³ 趙榮祐, 『觀我齋稿』 卷2, 「宅記」, “宅在漢都北部順化坊彰義里之仁王谷, 實谷南第四家也. …家凡十六楹, 爲室三廳一也. …適德山公曾孫重明將賣之. 償以白金一百五十兩, 以明年辛亥二月某日移居焉.”

³⁴ 『承政院日記』 원본 1491책, 정조 5년(1781) 8월 7일 병자. “…上曰, 碑役所入物力, 想甚不少, 果爲幾何乎? 亨達曰, 所費幾至七千餘金, 而太半是役軍之價矣.”

³⁵ 이문건 지음, 김인규 옮김, 『역주 목재일기』(민속원, 2018), p. 134.

³⁶ 尹拯, 『明齋遺稿』 卷13, 「與宋子文」.

³⁷ 尹文舉, 『石湖遺稿』 卷2, 「上仲氏童士先生」, 己丑四月二十八日. “…碑刻手功, 下木一疋六字, 上木一疋十二字. 磨石役夫, 一日之價半疋, 而酒食之用. 十二石米云, 以此計之, 則兩表石治功容入, 不下九同木矣.”

정 및 石材의 수급과 匠人, 비석의 형식 등 제반 사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2. 비문에 대한 오태주의 인식과 著述觀

오두인이 기사환국(1689)으로 서거하면서 가문의 대소사를 22세의 오태주가 맡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선대 묘비 건립이었다. 오태주 집안 묘소 가운데 오두인이 서거한 1689년 이전에 건립된 비석은 〈吳定邦 墓表〉(1627경), 〈吳壽千 墓碣〉(1628), 〈吳士謙 墓表〉, 〈吳士謙 配 全州李氏 墓表〉뿐이었다. 이에 대해서 오태주는 ‘수십 년 동안 喪戚이 연이어 있어서 墓道文字를 세울 겨를이 없었으며, 겨우 遺事를 꾸며 글을 부탁하려 했으나 先人(오두인)이 서거하여 그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³⁸

10여 기의 묘비를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태주는 碑文, 墓誌 등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해 직접 年譜와 行狀 등을 작성해 崔錫鼎(1646~1715), 金昌協(1651~1708), 崔昌大 등에게 비문을 부탁했으며, 墓表 陰記 등 짧은 글은 스스로 짓기도 했다.³⁹

더불어 오태주는 늘 ‘근세 碑版의 병폐는 진실 된 기록은 적고, 허황되고 넘치는 것이 많으니, 墓文을 作者에게 부탁할 때는 반듯이 여러 차례 오고 가며, 깎아내고 또 깎아내어, 소략해져도 죄가 되지 않고, 과장됨을 걱정해야 한다.’⁴⁰라고 하여 비문 서술이 과장되고 허황된 말로 채워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金昌協은 ‘조상의 글을 부탁함에 그 과장됨을 걱정하는 사람은 海昌公 외에 보지 못했다.’라고 하여 오태주의 비문에 대한 저술관을 짐작할 수 있다.⁴¹

『취몽헌산고』에 실린 7편의 편지글 중 최석정과 비문의 교정을 위해 주고받은 것이 3편이다. 나머지도 집안의 묘소 移葬 및 비문 청탁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어서 오태주의 삶이 선조에 대한 孝敬之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오두인 신도비문을 지은 최석

³⁸ 『醉夢軒散稿』권4, 「與崔參判錫鼎書」, 1689년 9월 23일, ‘…先祖下世今已五十餘年而, 鄙家門運孔慘十年來喪戚連仍, 未達於墓道文字尙闕. 幽堂之誌 先人每以此懼然. 於嘗欲手草遺事乞銘台丈. 不幸先人棄背後事之責唯在於泰周, …’

³⁹ 오태주가 지은 年譜는 1편, 行狀은 6편, 碑文은 7편이다.(『醉夢軒散稿』 및 『海州吳氏家乘』 참조)

⁴⁰ 吳瑗, 『月谷集』권9, 「題曾王考碑文草後」己酉(1729년), ‘…先公嘗疾近世碑版, 類多浮溢鮮實錄, 其乞墓文於作者, 必屢屢往復, 刪而復刪, 寧失之略, 而慮或夸, …’

⁴¹ 吳瑗, 『月谷集』권9, 「題曾王考碑文草後」己酉(1729년), ‘…故農巖先生嘗作祖考墓碑而曰, 求先銘而惟恐其夸者, 吾獨見海昌公, …’

⁴² 『醉夢軒散稿』는 尺牘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권4에 비문 및 묘소 관련된 글들만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최

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태주는 생략과 첨부할 항목을 13개나 언급하며 매우 꼼꼼하게 비문 내용을 점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한 예로 최석정이 ‘七十餘州’라고 쓴 것을 “嶺南은 곧 67번이며 ‘餘字’는 깎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라고 하여 사소한 숫자도 바로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죽음을 앞둔 오태주는 선대의 碑碣 중 治石했는데 세우지 못한 것, 마땅히 고쳐 세워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해 동생인 오진주와 아들인 오원에게 뒷 일을 부탁하기도 했다.⁴⁵ 오태주 사후에는 동생인 오진주가 미처 세우지 못한 비석을 완성하거나 墓誌를 지어 매납하는 등의 일을 마무리했다.

오태주는 元 趙孟頫의 글씨체인 松雪體의 대가로 왕실의 다양한 書役に 참여하기도 했으며, 선조들의 묘비는 대부분 직접 서사했다(표 4). 이러한 오태주 선대 비석 이외에 그의 작품은 매우 적어서 〈金壽興 墓表〉(1706), 〈李世華 神道碑〉(1708), 〈洪處厚 墓表〉(1713), 〈金佑明 墓表〉(1747 改立), 〈李贊英 墓表〉⁴⁶, 〈김도제 묘표〉등이 있다. 이 작품들도 오태주의 친인척과 두터운 世交가 있는 인물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태주는 22세에 부친이 서거하자 수십 년간 미뤄두었던 선대 묘비 건립을 담당하게 되어, 비문을 부탁하기 위한 자료인 行狀을 집필하고, 비문을 부탁한 뒤 여러 번의 刊削, 수정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허황된 만들을 덜어내는 등 자신만의 묘비문 著述觀을 가지고 묘비를 건립했다. 10여 기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비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을 쏟아 부어야 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태주는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석정에게 보낸 것이 「與崔參判錫鼎書」, 「與崔右相論先祖墓碑」, 「與崔相國論公主墓誌」 등으로 모두 비문, 묘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밖에 「與仲章兄」은 집안 묘소의 遷葬, 先山 문제 등이다. 나머지 3편은 집안에 대한 안부 편지이다.

⁴³ 『醉夢軒散稿』권4, 「與崔右相論先祖墓碑」에는 오태주가 최석정에게 오두인 신도비문 내용 중에 添削할 내용이나 바꾸어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自爲狀, 狀草初出 從祖之手, 而侍生略有添補而已自爲狀之語, 非實狀刪改如何. 一松沈相國云云 幼時見獎於長者之言 不必盡錄 刪去未知如何, …’)

⁴⁴ 『醉夢軒散稿』권4, 「與崔右相論先祖墓碑」, ‘七十餘州. 嶺南乃六十七邑 則餘字似可刪.’

⁴⁵ 『海州吳氏家乘』권5, 「文孝公府君遺事」, ‘先代碑碣 有治石而未及豎者, 且有當改豎者, 及疾革一一舉以語家嚴俾速就功焉.’

⁴⁶ 〈李贊英 墓表〉는 醫官 李贊英(1609~1665)의 묘비로, 이빈영이 오두인과 인연을 맺어 그 아들인 李長白(1656~1715)까지 50여 년 지속되었는데 오태주는 이장백의 부탁으로 이 작품을 서사했다.(『醉夢軒散稿』권4, 「祭李醫長白文」, ‘…君嘗營先表, 請吾書石縱, 今書刻 誰能運致墓前耶, …’)

IV. 오탈아가 건립한 묘비의 특징

오탈아와 관련된 묘비 중 가장 빠른 것은 부인인 <明安公主 墓碣>(1688)이다(도 1). 숙종이 명안공주와 오탈아를 아꼈던 만큼 명안공주가 1687년 서거하자 장례에 정성을 다했다. 숙종은 명안공주의 喪次에 舉動하고⁴⁷, 棺, 漆, 祭需 등을 지급하거나⁴⁸, 墓所를 풍수로 이름난 李嶠로 하여금 정하게 했다.⁴⁹ 더불어 석물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江華島에서 채취해 제작하게 했으며,⁵⁰ 이듬해 <명안공주 묘갈>을 건립할 때는 曳運軍 등을 파견해 돕기도 했다.⁵¹



도 1 <명안공주 묘갈>, 1688년, 높이 244.5cm, 안산시, 김민규 촬영

명안공주묘 석물과 함께 왕실에서 제작한 <金萬基 墓表>(1687)는 碑座에 조각한 獅子, 覆蓮 등이 <명안공주 묘갈>과 동일해 같은 장인들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⁵² 또 <명안공주 묘갈>의 개석 형태나, 비좌에 조각된 사자뿐만 아니라 문석인, 망주석의 세호, 장명등의 형태도 오탈아 집안 석물과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명안공주 묘갈>건립에 오탈아의 역할은 비문을 書寫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며, 비석의 양식은 당시 왕실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명안공주 묘갈>부터 오탈아 가문에 건립된 비석의 碑文이나 陰記는 대부분 오탈아가 書寫했다.⁵³ 篆字는 金壽增(1624~1701), 南道振(1674~1735)에게 의뢰했으며, 前面字는 일부 오탈아가 쓰지만 石峯 韓濩 <大字千字文> 集字碑가 눈에 띄게 많이 제작되었다(표 4, 5). 또 龍鈕形蓋石이라는 매우 화려한 개석 4기, 실제 목조건축을 모방한 十字閣形蓋石 2기 등 장식적

47 『承政院日記』 원본 322책, 숙종 13년(1687) 5월 17일 갑오.

48 『承政院日記』 원본 322책, 숙종 13년(1687) 5월 16일 계사.

49 『承政院日記』 원본 322책, 숙종 13년(1687) 5월 21일 무술.

50 『承政院日記』 원본 322책, 숙종 13년(1687) 5월 22일 기해. ‘傳于權是經日, 今後公私石物, 勿爲取用於江都事, 纔已定式矣. 第公主之喪, 事體自別, 今此明安公主墓所石物, 特爲浮取以給事, 分付.’

51 『承政院日記』 원본 328책, 숙종 14년(1688) 3월 12일 을유.

5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下-조선후기 도판(2008), pp.85, 87.

53 오탈아 생존 시 건립된 오탈아 가문의 비석 중 <오정방 묘비>만 金壽增이 서사했으며, 나머지 14기는 모두 오탈아가 서사했다(표 4 참조).

이며, 매우 높은 조각 수준의 작품들이 건립되었다.

< 표 4 > 오탈아가 건립한 묘비 목록

연대	명칭	위치	형태	비고
1688년 3월	<明安公主 墓碣>	안산시	蓋石方趺	公主陰記 吳泰周書
1689년 1월	<吳翺 墓表>	안성시	圓首方趺	崔錫鼎撰(吳斗寅請), 吳泰周書
1690년	<吳翔 墓碣>	안성시	龍鈕形蓋石方趺	南龍翼撰(己巳正月), 吳泰周書
1690년	<吳翺 墓表>	안성시	螭首方趺	吳泰周識并書
1690년 4월	<全州李氏(吳翺配) 墓表>	안성시	圓首方趺	吳泰周書
1697년	<黃埏 墓表>	용인시	圓首方趺	崔錫鼎述, 吳泰周書
1698년 7월	<吳定邦 墓碑>	안성시	螭首方趺	李景奭撰(吳翺請, 1653년 文成), 金壽增書并篆
1699년	<吳翔 墓碣> 全面字改修	안성시	龍鈕形蓋石方趺	贈職으로 인해改修
1701년 7월	<吳斗寅 神道碑>	안성시	龍鈕形蓋石方趺	金昌協撰, 吳泰周書, 金壽增篆
1703년 2월	<吳斗興 墓碣>	안성시	龍鈕形蓋石方趺	崔昌大撰, 吳泰周書, 前面韓濩集字
1703년 4월	<吳翺 墓碑>	안성시	龍鈕形蓋石方趺	崔錫鼎撰, 吳泰周書, 外曾孫南道振篆
1704년 3월	<吳顯 墓表>	용인시	圓首方趺	前面韓濩集字 陰記 吳泰周識并書
1704년 3월	<吳戒從 墓表>	안성시	圓首方趺	吳泰周撰并書
1704년 3월	<黃震瑞 墓表>	용인시	圓首方趺	吳泰周書
1705년 7월	<尙州黃氏(吳斗寅繼配) 墓碣>	안산시	蓋石方趺	崔昌大撰, 吳泰周書, 集唐八分爲額
1715년	<吳斗寅 墓表>	안성시	蓋石方趺	崔昌大撰, 吳泰周書 前面韓濩集字
1719년경	<黃佑漢 墓表>	용인시	圓首方趺	오탈아가 건립 도모. 錦城縣令 吳晉周識, 伐石豎立. 前面韓濩集字, 吳泰周集字
1720년 10월	명안공주 묘갈에 오탈아 내용 추가	안산시	蓋石方趺	1720년 10월. 駙馬 陰記 金昌翁撰, 吳泰周集字
1721년	<吳士謙 墓碣>	안성시	螭首方趺	崔錫鼎撰(1700년 文成), 吳泰周書
1724년	<安東權氏(吳賢卿配) 墓表>	안성시	圓首方趺	吳晉周識

연대	명칭	위치	형태	비고
1737년 2월	〈驪興閔氏(吳斗寅配)墓碣〉	안성시	螭首方趺	金昌協撰(1706년 文成), 吳泰周集字, 前面韓濩集字
1737년 2월	〈原州金氏(吳斗寅繼配)墓碣〉	안성시	螭首方趺	金昌協撰(1706년 文成), 吳泰周集字, 前面韓濩集字
1760년	〈吳賢卿墓表〉	안성시	圓首方趺	오테주가 건립위해 伐石, 吳晉周識

〈표 5〉 오테주와 18세기 초 석봉 한호 <대자천자문> 집자비와의 관계

연대	명칭	撰者	前面	碑文	오테주와의 관계
1703년	吳斗興墓碣	崔昌大	韓濩集	吳泰周	오테주가 건립
1704년	吳顯墓表	吳泰周	韓濩集	吳泰周	오테주가 건립
1707년	俞省曾墓表	鄭澹	韓濩集	金壽增集	오두인과 친분
1708년	金萬胄墓表	金錫衍	韓濩集		오두인의 처4촌
1711년	鄭載岱墓表	尹趾完	韓濩集		東平尉鄭載崙伯兄
1712년	尹淸墓表		韓濩集		비석 건립한 尹德駿의 고모부가 김수홍(오테주 사돈)
1714년	洪處大墓碣	權尙夏	韓濩集	金鎭圭	비석 건립한 홍우녕이 김도영(김도영은 오테주와 6촌)
1714년	洪受寬墓表		韓濩集	洪禹寧	
1715년	吳斗寅墓表	崔昌大	韓濩集	吳泰周	오테주가 건립
1716년 이전	金壽興墓表	金昌協	韓濩集	吳泰周	김수홍은 오두인의 사돈
1717년	李劼墓表	李緯	韓濩集	柳公權模	오테주 弟夫李緯가 건립

1. 石峯 韓濩 <大字千字文> 集字碑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건립된 집자비는 6기로 드물게 제작되었는데, 조선 18세기부터는 매우 활발하게 건립되어 약 190여 기에 이른다. 특히 비석의 앞면에 石峯 韓濩(1543~1605)의 <大字千字文>을 집자한 작품은 100기가 넘게 건립되었다.⁵⁴

⁵⁴ 김민규, 앞의 논문(2019), pp. 319-327.

한호의 <대자천자문>은 1689년 南漢山城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며,⁵⁵ 이 글씨는 懸板 글씨에 적합해 '額體'라고 불렸으며, '기세가 웅장하고 강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⁵⁶ 아마도 이러한 웅장하고 강건한 모습 때문에 한호의 <대자천자문>이 묘비의 前面大字로 즐겨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한호의 <대자천자문>집자비가 가장 먼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건립된 것이 오테주가 건립한 비석들로 추정되며, 이 작품들이 확산되는 것도 오테주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수 있다.

1) 韓濩 <大字千字文> 集字碑 건립의 시작

오테주가 건립한 내외가의 비석 중 이 <대자천자문>을 집자한 작품으로 추정하는 작품은 <吳斗興墓碣>(1703, 도 2), <吳顯墓表>(1704), <吳斗寅墓表>(1715) 등 3점이며, 오테주가 건립하려고 했으나 사후에 완성된 작품은 <黃佑漢墓表>(1719), <驪興閔氏墓碣>(1737), <原州金氏墓碣>(1737) 등이다.⁵⁷ 위 작품들은 비석에 '集字'라는 기록이 없어서 그동안 집자비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오테주가 썼다고 추정하기도 했다.⁵⁸

이 작품들에 새겨진 글자와 <대자천자문>의 글자 크기와 형태를 비교하면 이 작품들이 집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⁹ 가장 먼저 건립된 <오두홍 묘갈>과 <대자천자문>의 글



도 2 <오두홍 묘갈>, 1703년, 높이 285cm, 안산시, 김민규 촬영

⁵⁵ 허정욱, 「조선 후기 집자비(集字碑)의 유행과 석봉체 집자비」, 『한석봉의 서예』(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p. 77.

⁵⁶ 姜世晃, 『豹菴稿』卷5, 「傲石峯千字文帖」, “每見韓石峯大字千字文, 歎其氣勢之雄強, 爲不可及…” 허정욱, 위의 논문, pp. 77-78.

⁵⁷ 黃佑漢은 오테주의 외고조부로 오테주가 비석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별세하는 바람에 그 아우 吳晉周가 오테주의 글씨를 모각해 건립했다.(吳晉周, 「黃佑漢墓表」, 『國朝人物考』, 續稿3, 「聊宰」) 여흥민씨와 원주김씨의 묘갈도 오테주가 건립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해 이후 오테주의 글씨를 모각해 건립한 것이다.(先考海昌公 既乞兩夫人銘於金文簡先生, 將手書以刻石, 屬疾未就也. 不肖瑗 謹收集遺筆模刻 而立於阡 以卒先人之志. <原州金氏墓碣>; 海昌公手書此銘, 病未克就 今謹模刻, 其遺筆以成其志云. <驪興閔氏墓碣>)

⁵⁸ 정해득은 '오테주의 글씨는 송설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大字의 경우 설암대자의 영향을 받은 석봉체를 연마해하였다는 것을 초기에 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정해득, 앞의 논문, p. 246)고 했다.

⁵⁹ 본고에서는 화정박물관 소장 油紙鈎勒本 <大字千字文>을 비교했다. 화정박물관 소장 <大字千字文>은 2冊으로 線



도3 <오두홍 묘갈>의 '嘉', 높이 15cm, 김민규 촬영



도4 <대자천자문>의 '嘉', 높이 15cm, 화정박물관 소장, 김민규 촬영



도5 <오두홍 묘갈>의 '鮮' 자, 1703년, 김민규 촬영



도6 <大字千字文>의 '鱗'과 '祥' 을 조합, 김민규 편집

자는 字形뿐만 아니라 크기도 거의 같다. 그중에 '嘉'자는 높이가 15cm로 <오두홍 묘갈>과 <대자천자문>이 동일하며 字形, 획의 특징 등이 같다(도 3, 4). 따라서 <오두홍 묘갈>은 현재까지 조사된 한호 집자비 가운데 가장 이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표 5).

<대자천자문>에 1000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해당 글자만으로 모든 비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없는 글자들은 비슷하게 쓰거나 여러 부수를 조합해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묘비 대부분에 '朝鮮'이라는 글자가 필요하지만 '鮮'자는 「千字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 '鮮'자를 다른 한호의 글자 筆意에 맞춰 쓰는 방법과 글자를 조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두 방법이 모두 오태주가 건립한 비석에서 확인된다.

한호 필의로 쓴 <오두홍 묘갈>의 '鮮'자는 '魚'의 첫 획이 매우 길고, '羊'의 중앙 세로획의 끝이 왼쪽으로 쏠려 있다(도 5). 이와 다르게 조합한 '鮮'자는 '魚'의 첫 획이 짧고, '羊'의 중앙 세로획의 끝이 중앙에서 끝나는 中鋒이 특징이다(도 6).⁶⁰

裝되어 있으며, 1면에 8字씩 붙여져 있다. 천자문은 油紙에 鈎勒한 뒤 먹으로 채워 넣었으며, 한 자씩 잘라서 책에 붙인 형태이다.

⁶⁰ 김민규, 앞의 논문 (2019), pp. 205-206.

한호 집자비에 새겨진 '鮮'자 중 한호의 필의로 쓴 작품은 <오두홍 묘갈>(1703)에서 시작해서 <俞省曾 墓表>(1707), <金萬胄 墓表>(1708), <鄭載岱 墓表>(1711), <洪受寬 墓表>(1714), <洪處大 墓碣>(1714), <李劼 墓表>(1717), <黃佑漢 墓表>(1719) 등 171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⁶¹ 조합한 '鮮'자는 <오두인 묘표>(1715) 등에서 시작되어 <金壽興 墓表>(18세기 초)만 1710년대 작품이며, 대부분은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건립되었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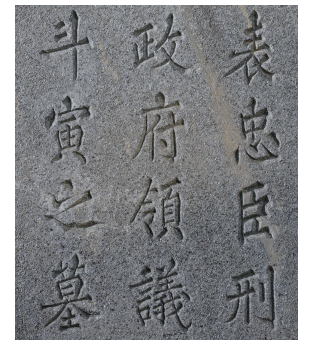
2) <大字千字文>의 의의와 확산

朴世堂(1629~1703)은 唐 顏真卿의 <多寶塔碑>로 집자를 권유하면서 “多寶塔은 글자 수가 매우 많고, 大字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지는 않으니, 이것을 집자해서 한다면 당대인의 졸렬한 글씨보다는 훨씬 나아 것이네.”라고 했다.⁶³ 집자의 목적이 비석에 어울리는 글씨를 당대 사람들에게 구하기 힘들다면 옛사람의 글자를 모아 새긴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태주도 자신이 잘 썼던 송설체로 비석의 前面에 큰 글자로 새기는 것 보다, '기세가 웅장하고 강건'한 <대자천자문>을 집자해 새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태주가 송설체로 전면자를 크게 쓴 <오상 묘갈>(도 7)과 한호 집자비인 <오두인 묘표>(도 8)의 글자를 비교하면 송설체는 字形이 아름답지만 한호 대자에 비해 氣勢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유명한 서예가



도7 오태주書, 오상 묘갈 전면자 부분, 1690년 건립, 1699년 개수, 김민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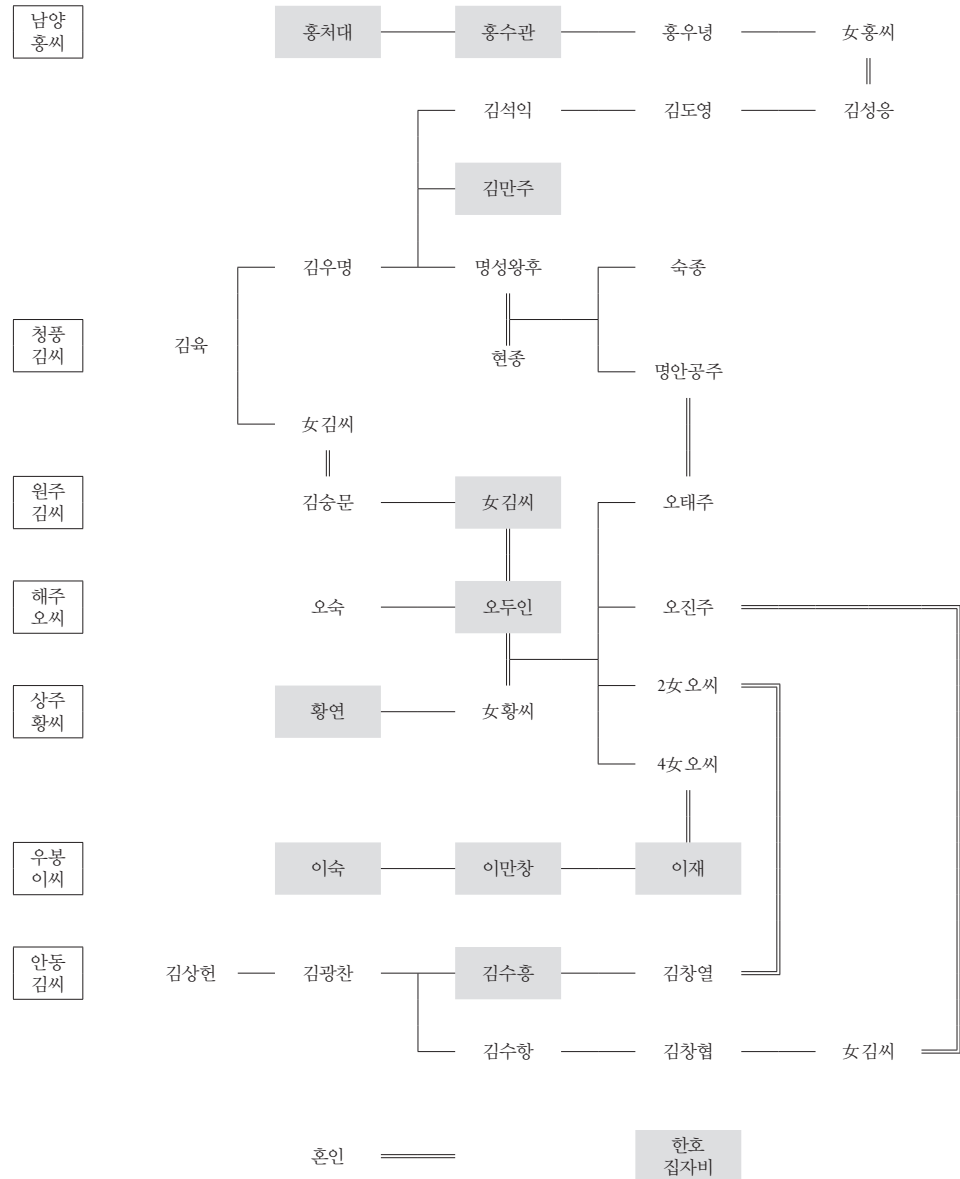
도8 한호 집자, 오두인 묘표 전면자 부분, 1715년 건립, 김민규 촬영

⁶¹ 김민규, 앞의 논문 (2019), pp. 205-206.

⁶² 김민규, 위의 논문 (2019), p. 206. <김수홍 묘표>는 명확한 건립일자가 새겨져 있지 않으나 김수홍 부인 南原尹氏가 1706년 9월에 죽어 11월에 합장한 것을 附記했으며, 음기를 쓴 오태주가 1716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⁶³ 朴世堂, 『西溪集』 권20, 『與李達卿(德字)』, ‘…多寶塔字數甚多, 雖非大字, 猶不至細小. 集此爲之, 則當絕勝於時俗人拙書. … 己卯二月廿四日.’

〈 표 6 〉 오태주의 친인척과 1710년대 한호 집자비 건립 상황



인 오태주도 이러한 書勢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18세기 초 한호 <대자천자문> 집자비가 확산되는 과정은 오태주의 가계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표 5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오태주의 친인척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수흥 묘표>⁶⁴는 오태주가 직접 陰記를 쓰기도 했으며, 김수흥은 오두인과 함께 기사 환국으로 죽었고, 김수흥의 아들 金昌說(1669~1732)은 오태주의 妹夫이기도 하다(표 1, 표 6). <김만주 묘표>의 김만주와 이 비문을 쓰고 건립한 金錫衍(1648~1723)은 모두 오두인의 처 4촌이다(표 2, 6). <이할 묘표>, <李晩昌 묘표>(1744)등을 건립한 李緯는 오태주의 妹弟였다(표 2, 5). <홍처대 묘갈>, <홍수관 묘표> 등을 건립한 洪禹寧(1660~1717)은 오태주와 6촌인 김도영과 사돈이기도 하다(표 6).

이처럼 한호 집자비는 오태주의 친인척 중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집자비가 전파되는 경로는 비석을 실물로 보는 것이 아닌 탁본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는 묘비를 건립한 뒤 拓本해 탁본을 친지에게 선물하는 전통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尹行恮(1762~1801)은 모친 漢陽趙氏 묘표를 건립하고 20권을 印出해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⁶⁵

오태주도 묘비 건립 후 탁본을 한 뒤에 주변에 나누어준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오계종, 오상 계배 전주이씨, 오태주 모친 상주황씨, 오태주의 외조부 황연 묘표 탁본 등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⁶⁶ 이들 작품 중에 전주이씨 탁본첩 말미에 ‘癸酉(1693) 六月旬四日謹書’라고 墨書되어 있는데 1690년 건립된 이 작품을 3년 뒤인 1693년에 탁본해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묘비를 직접 보거나 탁본첩 등을 열람한 지인들에 의해 한호 <대자천자문> 집자비가 공감하는 사람들로 전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鮮’자를 韓濩筆意로 새긴 <오두흥 묘갈>(1703)과 동일하게 새겼으며, 조합한 ‘鮮’자는 <오두인 묘표>(1715), <김수흥 묘표> 등이 건립되었다.

이후 한호 집자비는 오태주 친인척의 범위를 넘어서 咸安趙氏 趙榮祐가문, 咸從魚氏 魚

⁶⁴ 『朝鮮金石總覽』에는 ‘領相(退憂) 金壽興表. 金昌協(撰), 吳泰周(書), 前集韓濩字.’라고 기록되어 이 작품이 전면자는 한호 집자, 음기는 오태주가 서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朝鮮金石總覽』은 필사본으로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이며 등록번호는 9528이다. 표지에 朝鮮金石總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內紙에 朝鮮金石總目이라고 되어 있다. 大正元年을 중심으로 연대를 추정하고 있어서 1912년경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⁶⁵ 김민규, 앞의 논문(2019), p.116.

⁶⁶ 오계종 묘갈이나 황연 묘표 등의 표제에 ‘府君’이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오태주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有龜가문, 淸風金氏 金在魯가문 등으로 확산되었다. 즉 1716년 오탁주가 죽기 전까지 이러한 한호 집자비는 오탁주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건립되었으며, 1720년대 이후 여러 가문으로 확산된 점으로 보아 한호 집자비의 시작과 확산이 오탁주의 영향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오탁주 사후 그 가문에서 건립된 <여흥민씨묘갈>, <원주김씨묘갈>은 한호 집자비로⁶⁷ ‘鮮’자의 ‘魚’자는 한호 천자문이며, ‘羊’자는 필의로 쓴 것으로 혼재되어 있다. <황우한묘표>도 오탁주가 건립을 도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 동생 오진주가 건립한 작품인데 ‘鮮’자가 필의로 쓴 것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집자의 서체도 18세기 중반부터 한호뿐만 아니라, 唐의 歐陽詢, 褚遂良, 顏真卿, 柳公權과 北宋의 蘇軾 등으로 다양화되는데,⁶⁸ 오탁주 가문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탁주의 글자를 다시 집자하는 모습이 보여서,⁶⁹ 이 가문에서 오탁주의 위치와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2. 龍鈕形蓋石과 螭首

용뉴형개석은 15세기 梵鐘의 龍鈕 형태를 모방해 만든 개석형태로 <道岬寺 道洗國師守眉碑>(1653)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⁷⁰ 이 용뉴형개석은 조선시대에 총 11기가 건립되었으며, 이 중 오탁주는 안성 해주오씨 선영에 위치한 <吳翔墓碣>(1690), <오두홍 묘갈>(1703), <吳翻 墓碑>(1703) 등 3기를 건립했다. 같은 묘역에 있는 <오두인신도비>(1701)는 이와 유사한 盤龍形蓋石이다.⁷¹



도9 <오상 묘갈>의 용뉴형개석, 1690년, 안성시, 김민규 촬영

⁶⁷ 吳晉周, 「黃佑漢 墓表」, 『國朝人物考』續稿3. 吳忠貞子海昌尉泰周, 謀豎墓石事, 未就而下世. 弟錦城縣令晉州, 亟捐官俸伐石樹墓遂...

⁶⁸ 김민규, 앞의 논문(2019), pp. 102-105.

⁶⁹ 오탁주 사후 그 가문에서 오탁주 글씨를 집자한 작품은 <오탁주 묘표>(1720), <여흥민씨 묘표>, <원주김씨 묘표>(1737), <황우한 묘표>(1719년경) 등이다(표4 참조).

⁷⁰ 김민규, 「조선국사수미선사비의 제작장인과 양식연구」, 『문화재』48권 제1호(2015.3), pp. 73-74.

⁷¹ 龍鈕形蓋石은 용이 고리(鈕)처럼 조각되어 있으며, 盤龍形蓋石은 개석 위에 용이 엮드려 있는 형태로 조각된 것



도10 <오숙 묘비>의 용뉴형개석, 1703년 4월, 안성시, 김민규 촬영



도11 <오정방 묘비> 이수 뒷면, 1698년, 안성시, 김민규 촬영

해주오씨 가문의 용뉴형개석과 반룡형개석의 특징은 동일한 자세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용뉴형개석 3점을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건립된 <오상 묘갈>(도 9)은 두 마리의 용이 용뉴처럼 엉켜있으며 머리는 개석 좌우측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이다. 용뉴 중앙에는 如意珠가 조각되어 있다.

1703년에 건립된 <오두홍 묘갈>은 <오상 묘갈>에서 여의주만 조각하지 않은 형태이다. 대신 여의주가 있던 자리를 두 발로 잡고 있다. <오숙 묘비>(도 10)는 일반적인 용뉴형개석의 형태와는 다르게 앞뒤로 2마리씩 4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으며, 머리를 몸통에 붙이고 있으며, 각 용은 다리 하나씩을 개석 상단의 추녀마루 위에 올린 모습이다.

이처럼 개석의 형태를 작품마다 다르게 하는 것은 石工에게는 설계 및 조각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크므로 自意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조선시대에 총 11기만 조각된 용뉴형개석 중 오탁주 집안의 작품이 3기이며, 이 중 2기의 형태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 이 작품들의 형태 결정은 주문자인 오탁주에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용뉴형개석과 반룡형개석은 총 18기로서, 이중 가장 많은 수량이 오탁주가 건립한 4기이다. 또 2기를 건립한 가문이 申景禎가문, 俞徹가문, 閔鎮遠가문 뿐이다.⁷²

을 말한다. 김민규, 위의 논문(2019) pp. 148-149.

⁷² 조선시대에 건립된 龍鈕形蓋石과 盤龍形蓋石은 <道岬寺 道洗國師守眉禪師碑>(1653), <張維 神道碑>(1676), <申景禎 神道碑>(1683), <申砬 墓碣>(1688), <吳翔 墓碣>(1690), <吳斗寅 神道碑>(1701), <吳斗興 墓碣>(1703), <吳翻 神道碑>(1703), <俞徹 神道碑>(1712), <延齡君 神道碑>(1720), <金斗徵 墓碣>(1721), <淑嬪崔氏 神道碑>(1725),



도 12 <오정방 묘비> 이수 뒷면 용두 부분, 1698년, 안성시, 김민규 촬영



도 13 <태종 현릉 신도비> 이수 앞면 용두 부분, 1695년, 서울시, 김민규 촬영



도 14 <김좌명 신도비> 이수 뒷면 용두 부분, 1679년, 남양주시, 김민규 촬영

아마도 오테주의 사회적 신분, 경제력 등으로 화려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당시 최고의 장인에게 제작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예가 <오정방 묘비>(1698, 도 11)로 螭首에 조각된 용의 모습을 바탕으로 石工을 짐작할 수 있다. <오정방 묘비> 이수와 유사한 작품은 <太宗 獻陵 神道碑>(1695, 도 13)이다. <태종 현릉 신도비>는 李永立, 朴吉, 甘二建 등 13명의 석공이 匠人秩에 올라 있어서 이들이 제작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⁷³

이 중에서 박길은 ‘龍頭匠’으로 기록되어 있으며,⁷⁴ 비석의 이수가 석공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길이 용두장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현릉 신도비>의 이수 및 龜趺의 龍頭 등을 그의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릉 신도비>(도 13)와 이수의 양식이 동일한 <오정방 묘비>(도 12) 역시 박길에 의해서 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690년대 이수에 조각된 용의 양식은 <태종 현릉 신도비>와 <金佐明 神道碑>(1679, 도 14)로 구분할 수 있다. <김좌명 신도비>는 용의 두 눈을 모두 조각하는 특징이 있는데, 오테

주 집안 비석 중에서 <吳翻 墓表>(1690), <오상 묘갈>(1690, 도 9), <驪興閔氏 墓表>(1737년 건립)⁷⁵ 이수의 용 조각이 <김좌명 신도비>를 계승하고 있다.

반면에 <태종 현릉 신도비>는 <김좌명 신도비>에 비해 용의 머리가 길어지고, 눈을 하나만 표현하는 등 새로운 양식이다. 이와 동일한 양식의 이수가 오테주 가문에서는 <오정방 묘비>(1698), <오두인 신도비>(1701), <오숙 묘비>(1703, 도 10)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도 박길 등에 의해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3. <尙州黃氏 墓碣>의 蓋石

오테주가 생모를 위해 건립한 <尙州黃氏 墓碣>(1705, 도 15)의 개석은 목조가옥을 구현한 작품 중에서 조형미가 뛰어나며, 특수하게 개석을 十字閣 형태로 만든 작품이다. 이 개석의 상단에는 蓮峯(圓首), 荷葉이, 그 아래에 십자각이 조각되어 있다. 여기에 용마루, 추녀마루 등의 명확하게 드러나며, 그 끝부분에 龍頭가 총 12개 조각되어 있으며, 십자각의 合閣에는 風板, 지네철 등을 새겼고, 지붕 윗면에는 수키와를 형상화한 기와골이 조각되어 있는 작품이다.

<상주황씨 묘갈> 개석 하단에는 추녀마루, 서까래와 부연이 조각되어 있고 비신과 닿는 부분은 栱包가 조각되어 있다. 공포는 각 면에 4개씩 조각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包壁을 새겼



도 15 <상주황씨 묘갈>의 개석, 1705년, 안산시, 김민규 촬영



도 16 <명빈박씨 묘표>의 개석, 1703년, 예산군, 김민규 촬영

⁷⁵ 오두인의 첫 번째 부인인 驪興閔氏의 묘표 이수 양식은 <오숙 묘표>와 동일해 17세기말 18세기 초에 제작되었지만 1737년에 글씨를 새겨서 건립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李楫 墓碣>(1727), <閔鎮厚 神道碑>(1732), <俞慎基 墓碣>(1742), <金構 神道碑>(1743), <閔鎮長 神道碑>(1743), <俞命健 神道碑> 등이다. 김민규, 앞의 논문 (2019), p. 187. 참조.

⁷³ 김규훈, 「1695년 太宗 獻陵 神道碑의 再建 연구」, 『미술자료』 제94호 (2018), p. 75.

⁷⁴ 김규훈, 위의 논문, p. 76.; 박길은 1681년 仁敬王后 翼陵 山陵都監 大浮石所에 석장으로 참여하여, 1701년 仁顯王后 明陵까지 20여 년간 왕릉 대부석소에서 활동한 장인이다. 김민규, 앞의 논문 (2019), p. 127.



도 17 <상주황씨 묘갈> 개석 하단의 공포, 1705년, 안성시, 김민규 촬영



도 18 <명빈박씨 묘표> 개석 하단의 공포, 1703년, 예산군, 김민규 촬영



도 19 <상주황씨 묘갈> 개석 상단의 용두, 1705년, 안성시, 김민규 촬영



도 20 <명빈박씨 묘표> 개석 상단의 용두, 1703년, 예산군, 김민규 촬영

다. 공포에 조각된 첨차는 측면이 뚫려 있는데(도 17), 공포가 조각된 조선시대 비석 개석은 총 18기로 이중 이러한 작품은 오테주가 건립한<상주황씨 묘갈>과<오두인 묘표>(1715) 뿐이다.⁷⁶

목조건축을 모방해 용마루, 기왓골 및 막새, 공포 등을 조각한 가장 이른 작품은 왕실에서 건립한<禔嬪朴氏 墓表>(1703, 도 16)이다. 숙종의 후궁이자 延齡君(1699~1719)의 생모인 명빈박씨(?~1703)는 유일하게 숙종이 어필로 묘비를 남길 만큼 총애를 입은 인물이다.⁷⁷ 이러

한 이유로 <명빈박씨 묘표>는 숙종의 관심 아래 당시 최고 수준의 장인들이 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명빈박씨 묘표>의 개석(도 16)은 <상주황씨 묘갈>(도 15, 17)보다 전체적인 조형성, 용두, 공포의 형태가 매우 형식적이다. 공포는 포벽, 벽체의 첨차 등이 조각되어 있지 않고, <상주황씨 묘갈>처럼 공포의 좌우를 관통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다(도 18).

개석 위에 조각된 용두도 <상주황씨 묘갈>(도 19)은 이마가 높게 솟아서 주둥이와 명확하게 구분되며, 각 부분의 조각이 명료하고 입체감이 있다. 또 용두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차림이 제작한 이수의 용과 유사해 이 작품 역시 박길 등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명빈박씨 묘표>의 용두(도 20)는 납작하여 코부터 이마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세부 문양도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뒤이어 목조건축을 모방해 공포와 용두가 조각된 왕실의 비석 개석들도 모두 <명빈박씨 묘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미술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테주와 같이 뛰어난 미의식과 사회적 지위와 재력 등이 뒷받침된다면 사대부가에서도 왕실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주황씨 묘갈>이나 <오두인 묘표>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오테주가 문처럼 짧은 기간 동안 우수한 작품이 집중적으로 제작된 예는 찾을 수가 없다. 오테주는 1690년부터 자신이 죽는 1716년까지 약 27년 동안 10여 기의 비석에 용뉴형개석, 반룡형개석, 십자각형개석 등 다양한 양식을 시도하고, 세부적으로는 용의 형태를 모두 다르게 기획하거나 용두나 공포 등의 사실성을 높이도록 주문했을 것이다. 이러한 오테주 가문의 비석의 특징은 先親의 遺志를 계승해 선조들의 묘비를 건립하려 했던 오테주의 정성과 더불어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주황씨 묘갈>이나 <오두인 묘표>의 십자각형개석은 당시 왕실 작품의 수준을 크게 능가한다. 이 작품들은 전후로 유사한 작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수준인 것은 오테주가 이러한 비석 건립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IV. 맺음말

해창위 오테주(1668~1716)는 의빈이라는 지위로 인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文翰과 筆墨으로 自娛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의 부친 오두인(1624~1689)은 기사환국으로 죽으면서 수십 년간 건립하지 못한 先代 묘비 수립을 22세의 오테주에게 遺志로 남겼다. 이에 오테주는 1690년부터 그가 죽는 1716년까지 27년 동안 친가 묘소에 11기, 외가에 2기의 묘비를 건립했

⁷⁶ 공포가 조각된 비석 개석은 <禔嬪朴氏 墓表>(1703), <상주황씨 묘갈>(1705), <趙末生 神道碑>(1707), <오두인 묘표>(1715), <淑嬪崔氏 墓表>(1718), <延齡君 墓表>(1719), <延齡君 神道碑>(1720), <金斗徵 墓碣>(1721), <禔嬪張氏 墓表>(1723), <淑嬪崔氏 神道碑>(1725), <靖嬪李氏 墓表>(1725), <李楫 墓碣>(1727), <仁祖 長陵 表石>(1731), <閔鏡厚 神道碑>(1732), <貴人金氏 墓表>(1737), <俞愼基 墓碣>(1742), <花山君 神道碑>(1747), <俞命健 神道碑> 등이 있다. 김민규, 앞의 논문(2019), pp. 347-348, 353-354. 참조.

⁷⁷ 숙종 어필 묘비는 仁顯王后의 부친 <驪興府院君 閔維重 墓表>(1687), 仁敬王后의 부친 <光城府院君 金萬基 墓表>(1699), 외조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 묘표>(1747 재건) 등이 있다.

으며, 오태주 사후 그 동생인 오진주(1680~1724)와 후손들이 뒤이어 건립한 묘비가 5기이다.

오태주는 충실한 비문을 짓기 위해 선대의 行狀을 정리하고, 짧은 陰記나 墓誌는 직접 찬술하기도 했다. 비문을 부탁할 때는 내용이 과장되거나 부실하지 않을까 여러 번 상의하는 著述觀을 가지고 있었다. 또 오태주는 松雪體의 대가로서 가문의 대부분 비석 書寫를 담당하기도 했다.

오태주는 명필이었지만 ‘기세가 웅장하고 강건’한 특징이 있는 석봉 한호(1543~1605)의 <大字千字文>(1689년 간행)을 集字해 비석의 前面字로 사용했다. 현재 조사된 비석 중에서 가장 빠른 한호 집자비는 오태주가 건립한 <오두홍 묘갈>(1703)이며, 1710년대에 건립된 한호 집자비는 대부분 오태주의 친인척을 중심 건립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호의 <대자천자문>에 없는 ‘鮮’자가 없었는데 <오두홍 묘갈>에서는 한호의 筆意로 새겼으며, <오두인 묘표>(1715)에서는 <대자천자문>의 ‘鱗’과 ‘祥’을 조합해 ‘鮮’자를 만들어 새기는 등의 변화도 오태주 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용뉴형개석 3기와 반룡형개석 1기가 오태주의 안성 선영에 건립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가문 중 이러한 용뉴형개석과 반룡형개석을 다수 건립한 곳은 오태주 가문뿐이다. 또 여기에 조각된 용의 형태를 모두 다르게 했다는 것은 石工들의 自意가 아닌 주문자인 오태주의 미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상주황씨 묘갈>(1706)과 <오두인 묘표>(1715)의 개석은 목조건축을 번안한 듯한 작품으로 같은 시기 왕실에서 제작한 개석에 비해 전체적인 조형성이나 栱包, 龍頭 등 세부 표현 등에서도 왕실을 능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양식은 전후로 계승되는 작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작품이며, 이 역시 오태주의 주문에 의한 결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오태주가 건립한 묘비들은 수량이나 조형성, 조각 수준 등에서 조선시대 어떤 가문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 이는 오태주가 선대 묘비 건립을 평생의 所業으로 여겨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著述과 書寫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造形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 해창위 오태주(海昌尉 吳泰周, Haechang-wi, Oh Tae-ju), 석봉 한호(石峯 韓護, Seokbong, Han-Ho), 집자(集字, Collecting the Calligraphies), 이수(鱗首, Dragon ornamental capstone), 박길(朴吉, Park-Gil)

■ 투고일 2019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11월 7일 ■

참고문헌

1. 사료

姜世晃, 『豹菴稿』

『國朝人物考』

金龜柱, 『可庵遺稿』

朴世堂, 『西溪集』

吳瑗, 『月谷集』

尹拯, 『明齋遺稿』

『朝鮮金石總覽』

『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

正祖, 『弘齋全書』

趙榮祐, 『觀我齋稿』

『重訂南漢志』

崔錫鼎, 『明谷集』

『醉夢軒散稿』

『海州吳氏家乘』

2. 한국어 문헌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下-조선후기 도판,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보고서 I』, 2018.

김규훈, 『1695년 太宗 獻陵 神道碑의 再建 연구』, 『미술자료』 제94호, 2018.

김민규,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 연구』, 『문화재』 46권 1호, 2013. 3

_____, 『도선국사수미선사비의 제작장인과 양식연구』, 『문화재』 48권 제1호, 2015. 3.

_____, 『朝鮮時代 陵墓碑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수원화성박물관, 『천하명당 수원 현릉원』, 2019.

신채용,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사, 2017.

오세창, 『槿域書畫徵』

이문건 지음, 김인규 옮김, 『역주 목재일기』, 민속원, 2018.

정해득, 「해창위 오테주의 생애와 서예」, 『민족문화』48, 2016. 12.

허정욱, 「조선 후기 집자비(集字碑)의 유행과 석봉체 집자비」, 『한석봉의 서예』,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5.

한신대학교 박물관, 『한석봉의 서예』, 2005.

_____, 『海昌尉 吳泰周의 書藝』, 2015.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덕봉리 해주오씨 묘역 문화재적 가치 조사』, 2019. 9.

국문초록

海昌尉 吳泰周(1668~1716)는 明安公主(1667~1687)와 결혼해 儀賓(駙馬)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文翰과 筆墨으로 自娛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의 부친 吳斗寅(1624~1689)이 수십년간 선대 묘비를 건립하지 못하고 서거하자 그 遺志를 이어받아 先代 묘비 건립을 所業으로 삼았으며, 1690년부터 그가 죽는 1716년까지 27년 동안 진가 묘소에 11기, 외가에 2기의 묘비를 건립했다.

오테주는 비문이 과장되거나 부실하지 않을까 여러 번 상의하는 著述觀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 가문의 대부분 비석 書寫를 담당해 松雪體의 대가로서 모습도 보였다. 오테주는 명필이었지만 ‘기세가 웅장하고 강건’한 특징이 있는 石峯 韓濩(1543~1605)의 〈大字千字文〉을 集字해 비석의 前面字로 사용하기도 했다. 1710년대에 건립된 한호 집자비는 대부분 오테주의 친인적을 중심 건립되기도 했다.

오테주가 건립한 龍鈕形蓋石 3기와 盤龍形蓋石 1기 및 목조건축을 번안한 十字閣形蓋石은 수량이나 조형성 등에서 다른 사대부 가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우수하며, 왕실 비석의 수준도 능가 하고 있다. 이것은 오테주가 선대 묘비 건립을 평생의 所業으로 여기고, 著述과 書寫 뿐만 아니라 匠人과 造形 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위와 재력 등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Study of Tombstones by Oh Tae-ju, Haechang-wi (1668-1716)

Kim, Min-gyu*

Oh Tae-ju, Haechang-wi (1668-1716), the husband of Princess Myeongan(1667-1687), was excluded from entering the government as the son-in-law of a king. Instead, he practiced writing and calligraphy and erected tombstones for his ancestors. This was a task inherited from his father, Oh Doo-in(1624-1689) who passed away without completing the tombs. During the twenty-seven years from 1690 to his death in 1716, Oh Tae-ju commissioned eleven tombstones for the Oh family and another two for his mother's family.

He was meticulous in repeatedly discussing the epitaphs he wrote with others so that they were not exaggerating or underestimating, and took it upon himself to write the letters as a master of the Songxue style. Although his own calligraphy was highly appreciated, he also collected letters from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in Large Letters* of Seokbong, Han Ho, which were praised to be "magnificent in their vigor and sturdiness," to use on steles. The steles of collected letters of Han Ho made in the 1710s were mostly made under the patronage of Oh's relatives.

The capstones for tombstones commissioned by Oh-three dragon-shaped, one crouched dragon-shaped, and another roof-shaped, sculpted in imitation of wooden buildings-are innovative and outstanding in number and quality. They are incomparable to tombstones of any other literati families and even surpasses those of the royal family. Oh was able to erect such monuments because he took the project as his life's assignment, was versed writing and calligraphy and could direct artisans and their sculptures, and possessed considerable social status and wealth.

* Lecturer, Dongguk University